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 분석

-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입학전형을 중심으로 -

권 언 근 . 조 인 서

ABSTRACT. The methods of selection throug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were introduced in the process of recruiting new students for the science education institutes for the gifted attached to 25 universities recently. This paper itemized the methods of screening throug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This paper also analyzed the problems with the methods and attempted to create plans for their improvement.

The methods of selection throug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led to the positive results that students' usual activities and attitudes in the classroom were reflected on the evaluation and that the cost of their private lessons was also reduced. However, the methods showed a few problems that need to be corrected. We point out problems occurring with examining their documents for submission and interviews. It was not easy to grade candidates' gifts, creativity, potential and development within the contents of the documents and the limited time of conducting interviews.

On the plans for the developments of the implemented methods of selection throug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we have several suggestions. The chances for teachers' in-service training of learning the methods of selection through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need to be expanded. The interview needs to be enhanced and to have the same weight as the document screening. To secure the continuity of the education for the gifted, the clear guidelines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Technology along with the cooperation of the education institutes for the gifted are essential.

2012년 1월 18일 투고, 2012년 2월 22일 심사완료.

2010 Mathematics Subject Classification: 97B99

Key word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gifted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교육은 영재교육기관(영재학급, 영재학교,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Gifted Education Database)의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관유형별 영재교육기관의 총수는 2,001개이며 영재학생의 총수는 70,108명이다. 또한, GED의 통계를 살펴보면 기관유형별 영재교육기관의 총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과거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대부분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통해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선행학습을 하여 문제풀이에만 능숙한 학생이 선발될 가능성과, 사교육을 통해 시험 준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사교육비의 감소는 물론 영재교육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전국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201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모집과정에서 지필고사 형태의 선발시험을 폐지하고 추천과 서류심사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실제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관찰 및 추천 방식이 도입되었다. 관찰 및 추천으로 교육대상자를 선발하는 것은 지필고사와는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새롭게 도입되는 것이었다.

앞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을 정착시키고 영재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는 진정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이번 2011학년도 25개 대학 입학전형에서의 적용 사례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문제점, 또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전국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항목별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본교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중 38명(초등수학 심화과정 13명, 중등수학 심화과정 25명)과 학부모 12명을 대상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의 긍정적인 측면과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설문하였다.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가 전국 25개 모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대학 영재교육원의 전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Ⅲ. 연구결과

1.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교육대상자 선발방식 분석

전국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을 바탕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방식을 항목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진급심사나 특별전형 등을 통한 신입생 모집과 같이 해당 영재교육원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공지를 통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경우와 추가모집의 경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가. 모집분야

모집분야는 크게 초등심화과정, 중등심화과정, 중등사사과정으로 나누어진다.

총 25개 과학영재교육원 중 80%에 해당하는 20곳에서 초등과정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초등은 크게 수학, 과학, 정보 세 분야로 모집하고 있고 20개 영재교육원 중 약 50%는 수학, 과학 두 분야의 학생만을 모집하고 있다.

중등은 대전대의 포천시 지자체 장학반 전형과 경원대의 탐구과정, 연세대의 수학·과학기초과정 모집을 제외하면, 모든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심화·사사과정의 교육대상자만을 선발하고 있다. 중등과정의 각 분야별 모집분야는 수학·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정보 등으로 대동소이하다.

나. 지원 자격

각 영재교육원의 특성과 지역 형편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어 지원 자격은 영재교육원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근지역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2011학년도 기준 초등심화과정은 초등학교 5, 6학년을, 중등심화과정은 중학교 1, 2학년을, 중등사사과정은 중학교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심화과정 교육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영재교육원 중 65~75%의 영재교육원이 영재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일반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

고, 중등사사과정의 경우는 5곳의 영재교육원만이 일반학생에게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일반학생에게 자격을 부여한 경우, 학교당 추천인원을 제한하는 곳도 있다.

다. 제출서류

25개 과학영재교육원 대부분이 공통으로 입학지원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를 제출서류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외 학업계획서, 영재성 입증자료, 관찰·추천 근거자료, 에세이를 제출서류로 하고 있는 영재교육원들도 있고, 영재성 입증자료의 경우에도 학교마다 건수에 차이가 있다.

추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지적 능력, 창의성, 인성, 대인관계 등의 영역에서 영재성 발견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자기소개서에서는 대체적으로 지원 분야를 선택한 동기와 본인이 지원 분야와 관련해 노력해 온 경험, 창의적 문제해결 경험, 특별활동과 관련된 경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이겨낸 경험, 학업계획, 장래의 계획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라. 선발방식

각 영재교육원의 신입생 선발방식은 <표 1>의 내용과 같다. 서류전형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단계 서류전형, 2단계 면접의 형태로 신입생 선발이 이루어졌다.

<표 1>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방식

대학명	선 발 방 식		
강 릉 원 주 대	우선선발 대상자	본 교육원 수료예정자: 지도교수 추천 교육청 영재학급 수료예정자: 지도교사 추천 및 단순면접 선발	
	일반선발 대상자	1차 전형 (추천 전형)	1. 추천서 및 학교생활기록부Ⅱ, 자기소개서 심사 2. 추천서 및 생활기록부: 수학, 과학 분야의 성취동기 및 인성 3. 자기소개서: 학업우수성, 입학지원동기, 활동경험(봉사, 임원, 탐구활동)
		2차 전형 (관찰 전형)	1. 방법: 그룹단위로 제시 주제에 대한 자유 발언 방식으로 진행(제한시간 15분) 2. 평가: 입학사정위원의 관찰 평가 3. 평가요소: 동기유발, 창의성, 리더십
	사사과정	본 교육원 수료 예정자: 지도교수 추천	

대학명	선 발 방 식	
		타 대학 부설 교육원 수료 예정자: 지도교수 추천 및 단순면접 선발
강원대	1차 서류전형	1. 각 분야별 평가위원이 수험생 1명을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혹은 등급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2. 전형 자료: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등 3.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40% 내외
	2차 면접	1. 각 분야별 평가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수험생 1명을 개인별면접 실시 2.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및 면접 자료를 토대로 수험생의 적성, 탐구경험, 학습계획 및 동기 등 과학영재로서의 포괄적인 영재성, 잠재력, 창의성, 인성, 발표력, 발표 태도 등을 확인하고 평가 3. 중등 사사과정은 각 전공별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
	선발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의 서류전형 및 면접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교육대상자 선발
경남대	서류전형	1. 각 분야별 2~3인의 평가위원이 수험생 1명을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혹은 등급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2. 추천서,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Ⅱ의 수학·과학 교과 성적·특기사항·교내경시대회 기록 및 영재성 입증자료의 포괄적 평가 3.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2.5배수 이내
	면접	1. 각 분야별 2~3인의 평가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수험생 4~5명을 집단 면접 혹은 개인별 면접 실시 2.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의 사실 확인 3. 수학·과학의 특정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평가가 아니라 수험생의 적성, 탐구경험, 학습계획 및 동기 등 과학영재로서의 포괄적인 영재성·잠재력 및 창의 인성을 확인하고 평가
	선발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교육대상자 선발
경북대	서류심사 100%	전형 요소별 배점 ① 자기소개서 (100) ② 교사추천서 (100) ③ 학교생활기록부 (200)
경상대	1단계	1. 서류전형 ① 추천서: 추천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정보를 바탕으로 선발 ② 학교생활기록부Ⅱ: 학업성취도를 기준으로 선발 ③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내용을 바탕으로 선발 2.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20%
	2단계	제출서류와 관련된 창의·인성 면접
경원대	1차 서류심사	1. 제출서류 심사 2. 선발인원: 분야별 모집 정원의 200% 이내
	2차 면접	분야별로 실시되는 개인별 면접
공주대	1단계	1. 서류심사(전공별 담당 위원들의 산출물 결과 중심의 평가) 2. 초등부 심화과정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200%

대학명	선 발 방 식	
		3. 중등부 심화과정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50%
	2단계	제출서류 확인 면접(산출물 탐구 과정 중심의 평가), 인성 면접, 필요시 추천자 전화 인터뷰
군산대		1. 서류평가 2. 예비소집(자기소개서 작성) 3. 최종합격자 발표
대진대		서류 전형과 면접 결과를 종합하여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 선정은 본교의 선정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
목포대	1단계	서류전형(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2단계 면접	1. 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2. 수학, 과학 등 특정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 지적능력, 학문적성, 인성 등 과학영재로서의 포괄적인 잠재력 확인
부산대	서류전형	1. 각 분야별 2~3인의 평가위원이 수험생 1명을 평가하며 평가위원별 점수 혹은 등급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 2. 학부모 및 학생 지원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영재성 입증자료의 포괄적 평가 3.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5배수 이내
	면접	1. 각 분야별 2~3인의 평가위원이 서류전형을 통과한 수험생 4~5명을 집단 면접 혹은 개인별 면접 실시 2.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기재사항 사실 확인 3. 수학·과학의 특정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평가가 아니라 수험생의 적성, 탐구경험, 학습계획 및 동기 등 과학영재로서의 포괄적인 영재성·잠재력 및 창의·인성을 확인하고 평가
	선발	면접에 참여한 수험생의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의 결과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교육대상자 선발
서울교대	1차 전형	서류전형(관련 서류 확인 및 평가)
	2차 전형	면접
	최종선발	동점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서울대	서류심사	1. 서류심사 합격자 정원: 각 모집분야별 정원의 1.5배수 이내 2. 지원 서류를 평가하여 지원자별 순위를 부여함 3. 지역균형선발제 우선 적용: 11개 지역교육지원청별 서류심사 최우수자 1명씩을 우선 선발 4. 여석에 대해서 자유경쟁으로 선발: 지역균형선발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서류심사 합격자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중에서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 관계없이 우수자 순으로 선발
	면접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들
	최종선발	1. 지역균형선발제 우선 적용: 11개 지역교육지원청별 최우수자 1명씩

대학명	선 발 방 식	
		1. 을 최종 합격자로 우선 선발 2. 여석에 대해서 자유경쟁으로 선발: 지역균형선발제를 우선 적용하고 남은 최종 합격자 정원에 대해서는 아직 선발되지 않은 지원자 중에서 소속 지역교육지원청에 관계없이 우수자 순으로 선발
순천대	1단계	1. 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및 서류평가 2.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부모 관찰 기록지, 학교생활기록부Ⅱ
	2단계	수학, 과학 등 특정 교과지식을 확인하는 구술평가가 아니라 학생의 창의성, 학문적성, 인성 등 과학영재로서의 포괄적인 잠재력을 확인
아주대	1차	1. 서류전형 2.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4배수 이내
	2차	면접
안동대	1차 전형	1. 서류심사 2. 관찰추천제 전형이므로 지원자의 각종 수상실적은 평가에서 배제됨
	2차 전형	면접(서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연세대	1차 전형	1. 서류전형: 관련 서류 확인 및 평가 2.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1배수
	2차 전형	면접
	최종선발	동점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
울산대	서류평가	1. 지원자의 성취영역, 발전가능성, 잠재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평가 2. 선발인원: 모집 정원의 120% 내외
	면접확인	면접대상학생의 제출서류를 토대로 구술 대조 확인
	최종선정	다면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영재교육대상자 선정
인천대	서류평가 100%	영재교육원 특별 전형: 제출 서류 확인 후 복수의 전공별 사정관 서류 평가 및 2010학년도 기초과정 교육 중의 각종 평가를 합산하여 합격자 선발
		학교장 추천 전형 및 사사과정: 제출 서류 확인 후 복수의 전공별 사정관 서류 평가를 합산하여 합격자 선발
전남대	1단계	1.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영재성 평가 2. 선발인원: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내외
	2단계	1. 1단계 전형에서 선발된 학생의 제출서류를 근거로 한 면접 2. 창의성, 발전가능성 확인
전북대	1단계 교사추천	1. GED 프로그램 내 체크리스트: KEDI 영재 행동 특성 검사(50%), KEDI 창의적 인성 검사(50%) 2. 선발인원: 모집 인원의 1.5배수 선발 3. 1단계 전형 평가 점수는 2단계 전형에 반영되지 않음(1단계, 2단계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
		2단계
	3단계	선정추천심사위원회 사정을 통한 최종 확정

대학명		선 발 방 식	
제주대	1차 전형	1. 제출서류에 기초한 포괄적 평가 2. 1차 전형 대상자의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심사 3. 선발인원: 전형별 모집정원의 150%이내	
	2차 전형	1. 에세이 작성: 각 분야별 에세이 주제는 당일 제시하며 면접 전 실시 2. 면접: 수험생이 제출한 서류 확인, 에세이 평가, 예비과학자로서의 인성·창의성 평가	
	서류전형, 면접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발		
창원대	서류전형	1. 입학원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Ⅱ, 연구(조사)계획서 평가 2. 선발인원: 2배수 면접 대상자 선발	
	면접	1. 제출자료 확인 2. 영재성, 창의성, 인성 및 적성 확인에 의한 선발(교과지식 평가는 하지 않음)	
청주교대 A전형	1단계	1. 서류심사: 제출된 서류에 대한 전공별 2~4인의 종합평가 2. 선발인원: 모집정원의 1.5배수 내외	
	2단계	1. 면접 2.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학생의 잠재력 평가	
충남대	재학생 전형	서류전형	1. 학습활동 평가, 지도교수 평가를 종합하여 선발정원의 100% 내외 선발
			2. 학습활동 평가: 2010년 교육기간 중 지도강사가 교육진행 과정에서 성실성, 창의성, 과제해결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특별 및 일반 전형	서류전형	1.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창의성, 발전가능성,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
			2. 선발인원: 정원의 150% 내외
면접전형	면접전형	1. 개인면접 혹은 2~3명의 그룹면접 형식으로 면접위원과 지원자 또는 지원자들 사이의 질의응답, 토론, 발표를 하도록 진행	
		2.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지원의지 등을 확인하고 인성, 창의성, 발전가능성, 영재성 등을 종합평가	
동점자 처리		1순위: 면접 평가 2순위: 서류전형 평가	

2.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긍정적인 측면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 도입의 긍정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수업에서의 활동과 생활태도 등이 평가의 자료가 된다([부록 2] 문항 3과 [부록 3] 문항 5 참고). 일회성 시험이 아니라 평소 관심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창의적인 생각들이 평가의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선행학습의 필요성이 감소([부록 2] 문항 11 참고)하게 되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지만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발견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넷째, 지역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의 관찰과 추천을 통해 학생 선발이 이루어지므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도 객관성 확보에 있다고 판단된다. 다음에서 제시하는 관찰 및 추천방식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는 진정한 영재 선발은 물론 객관성 확보라는 공통 측면이 있다.

가. 제출서류 작성 및 서류전형에서의 문제점

첫째,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추천서 작성 시 어려움이 발생한다.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추천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관찰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해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영재교육을 담당하지 않는 교사들의 경우에는 학년말 추천서 작성이 상당히 어렵다. 시가상으로 갑작스럽고 무엇을 어떻게 기술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추천인의 기술 능력이나 자질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여지를 남긴다.

영재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²⁾에서도 보면 ‘영재교육대상자 추천 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영재 판별에 대한 전문성 부족, 영재 판별에 필요한 도구 부족, 업무량의 증가 순으로 답변을 한 바 있다.

둘째, 모집분야별로 학교나 영재교육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지역 특성과 기타 여건을 고려한 방법이겠지만 추천받고자 하는 학생은 많고 인원은 제한되어 있는 경우, 학교 내에서 어느 학생을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선발기준 마련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일반학교나 각 영재학급, 영재교육원의 규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실력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자기소개서의 본인 작성 여부와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각 영

2) 김미숙 외 6인,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CR2008-04), 한국교육개발원, 2008, 105~106쪽.

재교육원이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통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사실에 입각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가? 작성된 내용이 사실인가? 하는 것들의 진실 여부는 판단하기가 힘들다.

넷째, 창의적 산출물이나 영재성 입증자료의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인지, 주위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리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신입생 모집 공고 이후 자료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제출서류도 있다. 특히, 평소 수업 중 활동지 등이 영재성 입증자료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섯째,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등 제출서류가 서술형식이어서 사전에 평가기준에 대해 교육과 협의를 하더라도 평가위원 간 혹은 동일한 평가자일지라도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시간차를 두고 평가를 하게 될 경우 점수 차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나. 면접전형에서의 문제점

첫째, 각 영재교육원의 선발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면접을 서류 진위의 확인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작성된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 작성된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 서류전형만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거의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면접을 통해 학생의 영재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짧은 시간을 통해 학생의 여러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셋째, 서류전형에서 2배수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면 면접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면접 시 면접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가 요구되고 면접자들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다.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개선방안

첫째, 관찰 및 추천 선발방식에 관한 교사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을 분석³⁾한 자료를 보면 교사의 추천 유무에 따라 학생의 영재 관련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교사 추천은 영재 선발에서 70~80%의 판별 적중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적 교육이

3) 이인호·한기순,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제19권 제2호, 2009. 381쪽.

결여된 교사의 추천은 객관성 확보와 전문성 부족이라는 단점을 지닌다. 따라서 관찰 및 추천 선발방식에 관한 교사 연수의 폭을 넓혀서 더 많은 교사들이 영재의 특성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영재판별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201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2차 전형이었던 면접을 강화해서 서류전형만큼 비중을 크게 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신입생 선발과정을 살펴보면 서류전형이 학생 선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영재선발의 취지 중 하나는 사교육으로 인한 문제점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정책이 자칫 예상하지 않았던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지도 모르는 우려가 있으므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에 담긴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 확인해 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학생의 진정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접 시 선행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에서 전공과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부록 2] 문항 7과 12, [부록 3] 문항 6 참고).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력을 요구하는 전공과 관련된 질문 내용 개발과 그에 따른 세부적인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정이 허락한다면 수업관찰이라는 형태의 전형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이것은 두 번째 개선방안인 면접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맥락에 있다. 1차 전형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결과물이 아닌 문제해결 과정상에서 드러나는 영재성까지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1학년도에 도입된 관찰 및 추천 방식은 기존의 지필고사 형식과 비교한다면 서류전형만으로도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여기에 수업관찰이라는 형태를 도입한다면 더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될 전문가의 시각에서 학생들을 관찰해 볼 수 있는 수업관찰이라는 형태의 전형도 여건이 허락한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서류전형에서는 기술능력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해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하위 영역별 평가 요소 및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이 부분은 각 대학 영재교육원마다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달라서 사정이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만을 제출서류로 한 경우에는 시간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록 1]와 [부록 2] 문항 4 참고). 하지만 영재성 입증

4) 류지영·정현철,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 영재교육 연구 제20권 제1호, 2010. 281쪽.

자료의 건수가 많고 평소에 준비해 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 자료의 건수를 줄이거나 신입생 선발 시기인 학년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미리 공지를 해 주어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여섯째, 영재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확실한 지침과 대학부설 및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간의 상호협조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리라고 본다.

이번 2011학년도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에 관찰 및 추천 방식을 도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시대로 대부분의 영재교육원이 기초과정은 선발하지 않고 심화·사사과정만을 모집했다.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이 심화·사사과정을, 영재학급이나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이 기초과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제시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지역교육청 영재교육원에서는 기초·심화과정이 모두 운영된다면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자체 내 기초과정이 없어짐으로 해서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기관 간 상호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면 기초과정을 수료하는 동안 이루어 놓은 모든 수업활동들이 심화·사사과정을 위한 관찰 및 추천 선발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평소 영재교육 관련 연수를 받고 영재교육을 담당했던 교사의 관찰과 추천은 일반교사의 시각보다는 전문성이 높을 것이므로 추천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질 것이다.

IV. 결론 및 제언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서는 2011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처음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방식이 도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후 관찰 및 추천에 의한 방식을 정착시키고 진정한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2011학년도 25개 대학에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긍정적인 측면, 문제점 및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소 수업에서의 활동과 생활태도 등이 평가의 자료가 된다.

둘째, 선행학습의 필요성이 감소하게 되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셋째,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지만 영재성을 지닌 학생을 발견하여 추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넷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과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간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제출서류 작성 및 서류전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으로 추천서 작성 시 어려움이 발생한다.

둘째, 모집분야별로 학교나 영재교육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처음부터 제한하고 있는 경우, 학교 내 선발기준 마련이 문제가 되고 학교나 영재교육원의 규모에 따라 실력 차이가 날 수 있다.

셋째, 자기소개서의 본인 작성 여부와 진실 여부를 판단하기가 힘들다.

넷째, 창의적 산출물이나 영재성 입증자료의 경우에도 본인의 제작 여부를 알 수가 없고, 신입생 모집 공고 이후 자료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서류들도 있다.

다섯째, 제출서류가 서술형식이어서 평가위원 간 혹은 동일한 평가자라 하더라도 점수 차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면접전형에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을 서류 진위의 확인 정도로만 활용하게 되면 서류전형만으로 영재교육대상자를 거의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면접을 통해 학생의 영재성과 창의성, 잠재능력 및 발전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짧은 시간을 통해 학생의 여러 요소를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셋째, 서류전형에서 2배수 이상의 인원을 선발하면 면접에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찰 및 추천 선발방식에 관한 교사 연수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2011학년도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시 2차 전형이었던 면접을 강화해서 서류전형만큼 비중을 크게 둘 필요성이 있다.

셋째, 사정이 허락한다면 수업관찰이라는 형태의 전형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서류전형에서는 기술능력보다는 내용에 중점을 두어 평가를 해야 한다.

다섯째, 학생들이 서류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한다.

여섯째, 영재교육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확실한 지침과 대학부설 및 교육청부설 영재교육원간의 상호협조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 방식의 정착을 위해서는 신입생 선발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찰 및 추천 방식으로 선발된 학생들의 교육태도 및 수준을 기존 학생들의 실력과 비교하는 전국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선발 방식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2010), 올해부터 시험 없이 과학영재 발굴, 2010년 4월 1일 보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2] 김미숙 외 6인(2008),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수탁연구 CR 2008-04, 한국교육개발원.
- [3] 류지영 · 정현철(2010), 「영재학급 대상자 선발을 위한 관찰·추천 영재판별모형 개발 연구」, 영재교육연구, 20(1), 257-287.
- [4] 이인호 · 한기순(2009),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에서 교사 추천의 효용성 분석」, 영재교육연구, 19(2), 381-404.
- [5] 전국 25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201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 [6]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https://ged.kedi.re.kr/xerosware>에서 2011년 6월 27일 검색

Ern Gun Kwon

Department of Mathematics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E-mail address : egkwon@andong.ac.kr

In Seo Jo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760-749, Korea

E-mail address : fatcat@hanmail.net

설문결과

11. (10번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작성)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비교할 때 2011학년도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간단히 적어주세요.

- ◆ 창의성을 알 수 있다.
- ◆ 창의성이 뛰어난 학생 선발이 가능하다.
- ◆ 지원자의 인성과 창의성을 알 수 있다.
- ◆ 학생들의 평소 수업에서의 활동과 생활태도 등이 평가의 자료가 된다.
- ◆ 평소 수업태도로 뽑아서 학급 분위기를 좋게 한다.
- ◆ 예습(선행학습)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합격할 기회를 줄 수 있다.
- ◆ 지필고사 형태의 시험을 치지 않는다.
- ◆ 선발방식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
- ◆ 부담이 덜 된다.
- ◆ 없다.
- ◆ 무응답 10명

12. (10번에서 <예>라고 대답한 경우에만 작성) 2010학년도 입학전형과 비교할 때 2011학년도 관찰 및 추천에 의한 선발방식의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간단히 적어주세요.

- ◆ 수학적 지식을 알기가 힘들고 수학적 지식이 적어도 입학할 수 있다.
- ◆ 실제로 학생이 수학적 재능이 있는지 확인이 거의 불가능하다.
- ◆ 전공과목이 수학적 사람이 많았지만 글만 보고 떨어뜨렸다.
- ◆ 전공과목에 관한 큰 관심이 없어도 선발될 수 있으므로 전공과목에 흥미 없는 사람도 선발된다.
- ◆ 자세한 실력까지는 모를 수도 있다.
- ◆ 영재의 진정한 실력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 같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 ◆ 불공평하다. 정말 참된 인재를 찾을 수 없었던 것 같다.
- ◆ 선생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도 선발될 수 있다.
- ◆ 없다.
- ◆ 모르겠다.
- ◆ 무응답 10명

